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은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의 반민중적 정책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싸움을 만들어가야 할까? 광주·전남지역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전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2014년 우리들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불만, 노동자민중 투쟁의 고양

박근혜 정권은 취임 초기 인사난으로 흥역을 치렀고 이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차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집권 초기 반대세력의 결집이 예상되자 정부는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응하여 NLL대화록 물타기로 야당을 공격하고 검찰조직을 장악한 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공작과 그에 뒤이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등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정세를 주도하였다. 집권 초기 여권의 응집력에 대비되는 야권의 무기력, 억압적 국가기구·미디어를 활용한 '중복' 공세가 주효하였다.

수출-재벌의 기록적인 호황과 대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임금·소득은 정체되고 내부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부재 속에 기초노령연금 등 핵심 복지공약이 수정되고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이 진행되면서 사회 저변에서 불만이 잠재했고 이것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가 등장하고 있는데 선전적 구호 수준을 넘어서기에는 세력관계, 이데올로기 지형, 주체의 준비정도 등 모두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운동이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헤게모니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박근혜 전선의 관성에서 벗어나 대중의 민주주의 저항 속에서 노동권과 평화권의 문제를 급진화시켜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대규모 대중집회를 진행하며 노동자민중 투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삼성전자서비스 조직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 등을 통해 노동자운동의 사기와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밀양송전탑, 부양의무제·장애등

급제 등 전국적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재건을 통한 대안좌파의 형성

현 정세는 2014년 단기 전망뿐 아니라 중기 전망이 필요하다. 2007-2012년 민주노동당의 분열·해체와 민주노총의 지도력 붕괴 등 87년 또는 97년 이래 민주노조 운동의 순환이 마감됐다는 인식 아래 노동자운동의 재건을 통해 대안적 좌파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면 사안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중기 전략과제로 추진하는 '전략조직화'와 '정치세력화'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민주노총 선거방침 수립과 정치·사회운동 재편 흐름 속에서 민주적·계급적 진영이 현장과 지역 수준에서 일정한 세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 직선제가 그 자체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계기는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직선제 유예를 제기하는 것이 내부의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직선제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위한 혁신군을 구축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표상의 형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조직화 대상의 설정(금융세계화와 수출-재벌 체제의 핵심고리를 타격할 수 있는 업종 및 공단 조직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강화 사업), 조직화 목표의 정립(노동자 운동의 주체로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과 실용주의 경계)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은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의 돌파구 마련,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현 정세를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적·계급적 노동자운동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민중의 전면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민영화에 맞선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된다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정책위원회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를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협소하게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후 의료민영화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는 등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보건의료투자활성화정책 바로알기>라는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에 유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12월 17일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민영화 주장은 허구적인 컨셉이며, 괴담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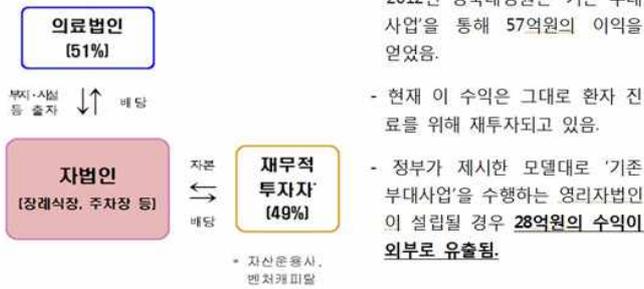
정부의 주장과 달리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부대사업의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원격의료 활성화 등은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하면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기존의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에서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의 구매, 의료기관 임대,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부대사업을 위해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려면 의료기관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환자 치료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모델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병원의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기존 부대사업의 독립법인화’를 경북대병원에 그대로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경북대병원 수익 중 28억 원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바로 의료기관 경영 부실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이어지며,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쥐어짜고 환자의 주머니를 털게 될 수밖에 없다.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하는 부대사업에는 구매·임대, 의약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광범위한 부대사업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면 병원 수익의 외부 유출

□ 기존 부대사업의 독립 법인화



은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려면 병원은 환자로부터 더 많은 의료비를 받아야만 한다. 병원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하게 만들 것이며, 더 많은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영리회사들로 빠져나갈 뿐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하다.

의료민영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재벌에게 주는 선물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 및 차병원 등 대형의료자본, 초국적 금융자본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부문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삼성은 제약, 의료기기를 미래의 대표적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하는 한편 제약회사도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건설, 유통부문에다 삼성 계열사를 진출시켜왔다. SK는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100억 원을 투자했으며, KT와 LG 역시 관련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SK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EMR), 약국관리 프로그램 등을 파는 유비케어, SK제약을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연매출 1조 2,000억 원, 영업이익 260억 원을 거두는 국내 최대 의약품도매업체인 지오영에는 골드만삭스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체인 케어캠프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재벌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부문을 장악하고 새로운 이윤창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러한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획이다. '동네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영리자회사를 통해 병원에 우회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이러

한 영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초국적 금융자본과 재벌이다. 이들이 병원과 공동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병원이 더욱 영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압박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철저히 산업발전의 논리에 맞춰서 의료제도를 바꾸는 계획이며 그 수혜자는 대형의료자본과 재벌, 초국적 금융자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의 행보는 노골적으로 친자본, 반노동자, 반시민적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는 이러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사태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민영화에 맞선 투쟁, 2014년 민영화 저지투쟁의 시작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법개정을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운영'이라는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재벌 이윤을 위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사회적인 반대여론을 조직하는 길 뿐이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의료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의 전국적 구성 등 전방위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1월 12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의협의 대해서는 의료수가 문제 등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제시하면서 반대 행동을 무마하려는 한편, 사회운동진영의 반대에 대해서는 철도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대응 기조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미봉책도 투자활성화대책이 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파괴적인 영향을 제어할 수 없으며, 그 효과는 의료인, 노동자, 환자 모두에게 재앙일 것이다. '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힘찬 투쟁을 전개하자!

2014년, 삼성재벌을 넘는 승리의 해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 그 의미와 과제

정책위원회



지난 12월 2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의 장례가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지난 10월 31일 열사가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55일만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문제의 책임자지만 끝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명목상 협력업체 사장단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을 내세웠다. 경총 교섭대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생활임금 보장, 업무차량 리스, 유류비 실비 지급 ▲건당수수료 및 월급제를 임단협에서 성실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유족에 대한 보상 ▲천안센터 이재근 사장에 대한 귀책사항을 재계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사항의 내용은 스스로 임금 액수나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도, 노조를 인정할 권한도 없는, 오로지 본사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협력업체 ‘바지사장’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결국 합의테이블을 만든 것도, 합의사항을 결정한 것도 본사인 것이다. 즉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이 삼성에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실패했으며, 삼성 자본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는 최초의 대규모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종범 열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조합원과 유족들이 흔들림 없이 투쟁한 결과다. 이번 투쟁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최종범 열사 이름 석 자와 삼성AS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졌다. 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상승되었고,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최종범의 꿈, 민주노조 승리”라는 목표가 깊게 새겨졌다.

이제 지난 성과를 갈무리하며,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할 때다. 2라운드 투쟁은 노조와 사측 모두에게 사활을 건 투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

불법파견 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재벌의 심장을 겨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법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아닌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다. 따라서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중심부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삼성을 위해 일하며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의 최전선에 서있지만, 삼성 노동자로서의 대우와 권리는 모조리 박탈당했다는 분노가 조직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고용형태는 삼성전자가 외주화를 거듭한 결과다. 삼성전자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비스사업부를 분리하여 현재의 삼성전자서비스(주)를 설립했다. 당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가 법제화되면서 삼성 외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해고와 외주화를 쉽게 할 목적으로 서비스나 판매 부분을 분리해 별도법인을 설립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주식의 99.3%는 삼성전자 소유이고, 운영과 매출구조 등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서비스사업부와 다름없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이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직고용 인원을 줄이고 외주화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2013년 현재 약 176개의 서비스센터 중 직영센터는 7개에 불과하며, 96%가 외주센터이다. 직고용 인원은 1천 4백 명,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인원은 1만여 명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88%에 달한다.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들이 자신들을 정점으로 하청, 외주화를 통해 만든 수직계열화 구조는 노동시장에 저임금, 간접고용 일자리를 양산한다. 대자본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자신들의 공간에 채우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과 일자리 창출비용,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필요한 비용은 외부로 전가한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수탈구조는 노동자를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력업체와 삼성전자서비스를 넘어 삼성전자 이견회와 이재용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재벌 하청체계의 피해자들이, 재벌을 향해 활시위를 겨누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 이번엔 반드시 넘자

한국에서 삼성을 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과 노동권 보장은 요원하다. 삼성은 한국경제의 30%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계열사와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전자산업 전체에 삼성식 수탈을 구조화한다. 또한 무노조전략으로 대표되는 삼성식 노무관리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인식을 확산하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며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박탈한다. 삼성이 바뀌어야 일터가 바뀌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바뀐다.

노동자운동이 삼성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삼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면, 삼성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삼성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키워나간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자신감과 정당성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또한 실제 삼성과 싸우는 경험을 통해 향후 조직화와 투쟁전략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에게도 '조직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넘어선다면 동종업계 노동자와 삼성그룹 계열사 하청사 노동자들도 조직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재벌 개혁의 중심에 노동권 확보를

민주노총은 2014년 사업기조로 “모든 투쟁을 반박근혜, 對삼성투쟁 전선으로!”를 내놓았다. 민중의 삶을 과탄 내는 정권과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에 민주노총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기조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악행은 종종 인구에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곤 하지만, ‘결국 한국사회는 재벌이 먹여 살린다’는 인식 또한 강력하다. 특히 삼성은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한국을 상징하는 재벌이다. 전자제품은 무조건 삼성이 제일 좋다는 삼성사랑, 외국여행 중에 삼성간판을 볼 때의 뿌듯함,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부동의 1위 등, 한국인들에게 삼성의 지위는 굳건하다.

삼성은 오랜 시간 ‘노조가 없이도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는, 노조가 필요 없는 회사’라고 공언하며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일부의 삼성 ‘중심부’ 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 삼성의 영광을 만들어온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지에서 무권리 상태로 일하고 있다. 삼성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재벌들이 수출을 아무리 늘려도 낙수효과는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란 삼성이 현재 ‘국민의 삶의 악화’를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기업보다 삼성에서 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삼성의 영광을 만들어온 노동자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노조가 설립되어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내부 비판자’ 역할을 하면서 삼성의 탐욕과 부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재벌에게 빼앗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대 삼성 투쟁’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동자운동, 노조와 연대하는 시민운동!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이 전국

에 산재해있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접촉면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누구나 삼성제품 AS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고객과 AS기사가 면대면 서비스로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친밀도와 개방성은 투쟁의 가장 큰 무기이다. 삼성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삼성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삼성에게 가장 큰 압박일 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은 노동자운동이 시민들과 하나 되어 싸우는 모습이어야 한다. 삼성을 이기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기존 자원과 조직력만으로는 안 된다. 고객들과 교감하고, 시민사회와 호흡하며 넓고 큰 사회운동을 만들자. 이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의 출범 등으로 시작되고 있는 '삼바(삼성을 바꾸자)운동'이 지향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과 노동자가 공감하며 함께 싸울 수 있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투쟁의 방식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열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금속노조, 조직화의 지평을 확대하자!

공장 생산직 중심인 금속노조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에 계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더욱 소중한 존재다. 금속노조가 제조업에서 조직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직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무직, 서비스직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직업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제조업에서 다수는 이미 생산직이 아닌 사무·영업·개발관련 직종이다. 생산직은 제조업에서 약 45%정도로 줄었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제조업에서 조직률을 높이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제대로 금속노조에 융합된다면 금속노조가 제조업의 변화에 맞는 조직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 강화는 한국노동자운동의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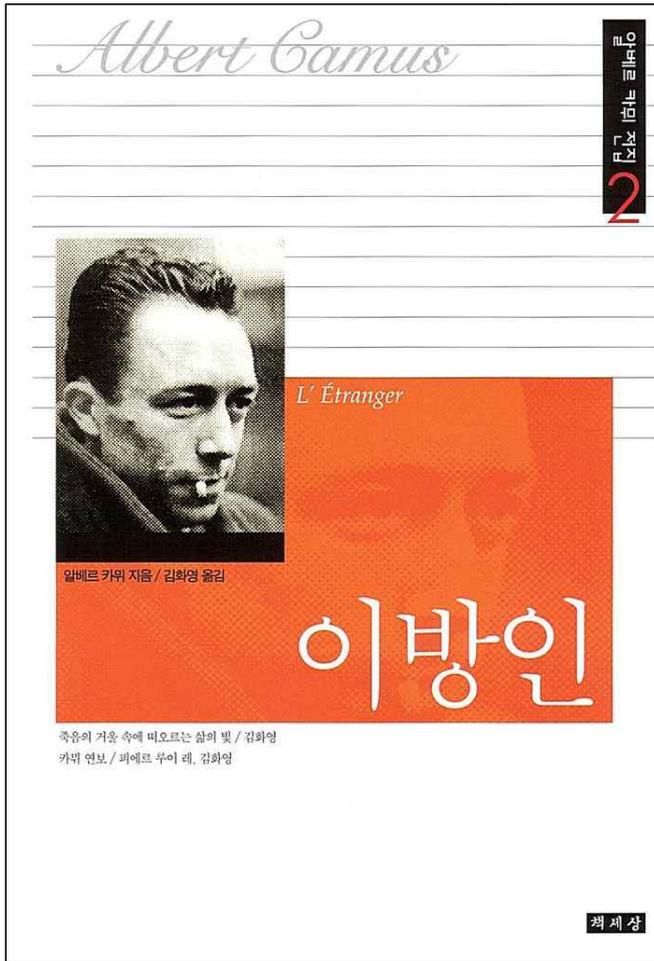


▲ 인물크로키 9화 中 / 글·그림: 박해성

되르소, 이방인? 그렇다면 그가 살인한 아랍인은 누구인가!

알베르 카뮈, 『이방인』 (책세상) 비판적으로 읽기)

백청일 | 민중행동 회원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형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카뮈가 자기가 쓴 『이방인』을 <미국판 서문>에서 한 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이방인』은 출간 후 ‘중전 후 최대 걸작’이라는 최대의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1957년 이 작품으로 카뮈는 노벨문학상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이런 호평과 노벨문학상까지 받았을까요? 먼저, 줄거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줄거리와 핵심

이 소설은 알제의 선박 중개인 사무실 직원인 주인공 되르소가 아랍인을 살해하기까지 내용을 다룬 1부와 재판의 과정을 다룬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 되르소가 마랑고의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무덤덤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와서는 항구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옛 사무실 동료 마리를 만나 코미디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 후, 이웃인 레몽과 친구가 되는데, 레몽은 정부인 변심한 아랍인 애인을 벌주려는 음모를 꾸미고 되르소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애인을 불러 폭행을 합니다. 며칠 후, 레몽, 되르소, 마리는 레몽의 친구 미송의 초대로 알제 근처 별장으로 놀러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미행한 레몽 정부의 오빠 일행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레몽이 다치고 되르소는 답답한 마음에 싸울 때 레몽에게서 빼앗은 총을 품에 지닌 채 그늘진 샘을 찾아 나섭니다. 그 곳에서 되르소는 잠전에 싸웠던 레몽의 아랍인 애인 오빠를 만납니다. 팽팽한 대치와 긴장 속에서 아랍인이 칼을 빼냈고 강렬한 칼날 빛에 되르소는 ‘히늘이 불을 비오듯 쏟아놓은 것’만 같은 느낌에 총을 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굳어진 몸뚱이에 다시 네 방을 쏩니다.

2부는 재판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되르소는 자신이 ‘처음에는 형무소에 있다는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예심과 본심 재판에서 ‘레몽, 바닷가, 해수욕, 싸움, 다시 바닷가, 조그만 샘, 태양 그리고 다섯 방의 총알’에 동의하면서도, ‘첫 방과 둘째 방 사이에 왜 기다렸’는지, 왜 ‘땅에 쓰러진 시체에다 대고 쏘았’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재판 과정은 결국 이걸 알아내려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었던 것인데, 되르소는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태양이 너무도 뜨거웠다’는 것 말고는. 결국 되르소에게 쏟아진 질문은 아랍인 살해의 경위가 아니라, 어머니 장례식장

1) 이 글은 분량 때문에 바로 『이방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비판을 하는 순서로 서술합니다 - 글쓴이.

에서 피르소가 보인 태도에 모아져 있습니다. 결국, 사형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변호사, 검사, 판사 등으로 이루어진 법정에서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르소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형이 감해질 수 있음에도, 피르소는 법정의 ‘단두대의 칼날’과 같은 ‘턱없는 확실성’을 ‘결함’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희한한 평화’를, 엄마가 ‘왜 인생이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이해한 피르소는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사형 집행일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1954년 어떤 독일 친구가 카뮈에게 『이방인』을 연극으로 각색하여 상연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카뮈가 그에게 비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에는 카뮈의 『이방인』에 대한 해석이 명료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는 대상은 윤리가 아니라 재판의 세계입니다. 재판의 세계란 부르주아이기도 하고 나치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암들입니다. 피르소로 말하자면 그에게는 긍정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거부의 자세입니다.”²⁾

실존주의, 부조리 소설로서 『이방인』

보통 이 소설을 가리켜서 인간의 부조리를 다룬 실존주의³⁾ 소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어사전에서 ‘부조리’를 찾아보면, “실존주의적인 용어로서, 인생에서 의의를 찾아낼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며, 한계 상황적,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데 쓰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뮈가 말하는 ‘부조리 인간(l’homme absurde)’은 ‘부조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간’, 즉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진 인간이란 뜻이지 결코 ‘부조리한 인간’이란 뜻이 아니다. 부조리는 인간’에’도, 세계’에’도 없다. 그것은 합리성을 열망하는

인간과 비합리성으로 가득 찬 세계 ‘사이에’ 있다. 말하자면 부조리는 합리도 아니요, 비합리도 아니다. 그것은 합리와 비합리의 뒤섞임, 즉 코스모스(Cosmos) 이전의 카오스(Chaos)와 같은 것이다.”⁴⁾

인간은 살아 있지만, 죽습니다. 삶과 죽음의 세계.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사는 걸까요? 학생들은 학교-집-학원으로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갑니다. 노동자는 집-일터로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도대체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절로 듭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부조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러한 부조리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마냥 좋거나 즐겁거나 아니면, 마냥 죽을 것만 같고, 슬프기만 하겠지요.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냥 운명이 정해진 듯 살면 그뿐이겠지요.

그런데 부조리를 느끼고 의식하는 인간은 다르겠지요.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부조리하다는 것과 이 세계가 그 부조리를 인간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세계와 인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한 인간은 이미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 즉 부조리를 느끼는 인간(‘현존재’)과 그 현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모두 아울러서 ‘세계-내-존재’(하이데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와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따라 세계와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⁵⁾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합니다.

예로 순천의 낙안읍성은 읍성이 아니지요.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에서 낙안읍성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라는 낙안읍성의 ‘실존’이 외적을 막는 낙안읍성의 ‘본질’에 앞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어느 누구도 낙안읍성을 ‘읍성’이라고 하지 않고 ‘관광지’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르트르는 카뮈의 『이방인』에 대해서 다음처럼 평을 합니다.

2) 알베르 카뮈, 『이방인』, 책세상, 2002.

3) 실존주의: 20세기 전반(前半)에 합리주의와 실증주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 네이버 지식백과.

4) 네이버 지식백과: 부조리란 무엇인가 알베르 카뮈, 2004.1.15, (주)살림출판사.

5)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의 소설가·철학자(1905~1980). 잡지 《현대》를 주재하면서 문단과 논단에서 활약하였으며,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제창하였다. 문학자의 사회 참여를 주장하고, 공산주의에 접근하였다. 작품에 소설 <구토(嘔吐)>, <자유에의 길>, 철학서 《존재와 무》 따위가 있다 - 네이버 국어사전.

“이방인이란 세계와 대면하고 있는 인간, 인간들 속에 태어난 인간, 나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나 자신, 즉 정신에 대하여 느끼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 즉 “어떤 때 거울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 이방인””, “그가 그리려는 이방인은 바로 사회의 이른바 놀이의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이변을 일으키는 저 기가 막힌 순진한 자들 중의 하나이다.”, “그는 여기 있고, 그는 존재할 뿐 우리는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 요컨대 그는 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그를 정당화시켜 주는 유일한 소설적 견고함은 바로 그 점인 것이다.”⁶⁾

그리고 다음처럼 결론짓습니다.

“부조리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이 세계, 세심한 배려를 다하여 인과율을 제거한 이 세계 속에서는 가장 조그만 사건조차도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방인』 과 ‘뫼르소 되기’ 비판

그러나 저는 오히려 카뮈와 사르트르 그리고 수많은 평론가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랍인’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방인』에서 아랍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레몽의 정부’이거나 뫼르소와 친구들을 위협하는 ‘레몽 정부의 오빠’입니다. 결국 그녀들은 뫼르소의 ‘이방인’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됩니다. 이를 더 쉽게 말해 보면, 뫼르소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볼 때, 아랍인들은 ‘이방인의 이방인’입니다.

20세기 들어 서양에서는 수많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습니다. 서양중심주의, 백인중심주의, 제국주의 역사, 뿌리 깊은 식민지정책, 이주노동자 차별과 유색인 차별 등. 이를 통해 백인/서양은 자신들만이 주체였다는 걸 반성하고 타자 취급했던 황인과 흑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과 다시 관계맺기를 시도합니다. 어찌 보면 카뮈의 『이방인』 또한 이런 반성 속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해서 이해하려는, 인과율만 중시하고, 세계는 결국 그것으로 다 해석 가능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그 틀 안에 쏘서 넣고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타자를 규정하는 ‘폭력의 세계’였고 그걸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는 것일요.

그럼에도 제가 볼 때 『이방인』은 이러한 기획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카뮈와 이를 극찬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여전히 ‘서양/서양인’이 아니면, ‘비서양/비서양인’으로 사고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타자이자 이방인인 ‘아랍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서양인이 아닐 뿐인 ‘비서양인’으로서 아랍인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때 거울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 이방인”은 처음부터 서양인의 거울 반대편에 비추인 자기 동일시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유령’처럼 나타난다고 해도 그 유령 또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유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타자’로 인식하고 그 존재를 사랑하다 결국 물에 빠진 나르시스의 꿈인 것이지요.⁷⁾

그래서 카뮈가 말한 ‘재판의 세계’, 사르트르가 말한 ‘놀이의 규칙’과 ‘인과율로 이루어진 세계’ 비판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중심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비판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식의 비판이든지 이 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아니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뿐인 반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백인이 아닌, 식민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것의 뿌리깊은 유산을 지금까지 이어받고 있는 세계사적인 착취와 억압의 현실 속에서 황인과 흑인을 보지 않는다면,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떻게 이를 좀더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화해와 평화는 고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아랍인’으로 대표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 더. ‘이방인’인 뫼르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뫼르소 되기’를 주장하지요. 앞에서 카뮈의 ‘이방인-뫼르소’의 한계를 지적했기에 여기서는 ‘뫼르소 되기’가 놓치고 있는 점을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뫼르소처럼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에 맞서 ‘일탈’과 ‘탈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뫼르소가 특이함을 추구하기 위해 탈주하는 그곳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기본권과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인간(시민)의 권리에 대해 싸우고 확보하는 투쟁을 통해 이 사회를 좀더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뫼르소가 죽인 레몽 정부의 오빠, 아랍인 또한 이 사

6) 장-폴 사르트르, 「『이방인』 해설」, 『이방인』, 책세상, 2002.

7)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상봉, 『나르시스의 꿈』 (한길사, 2002)을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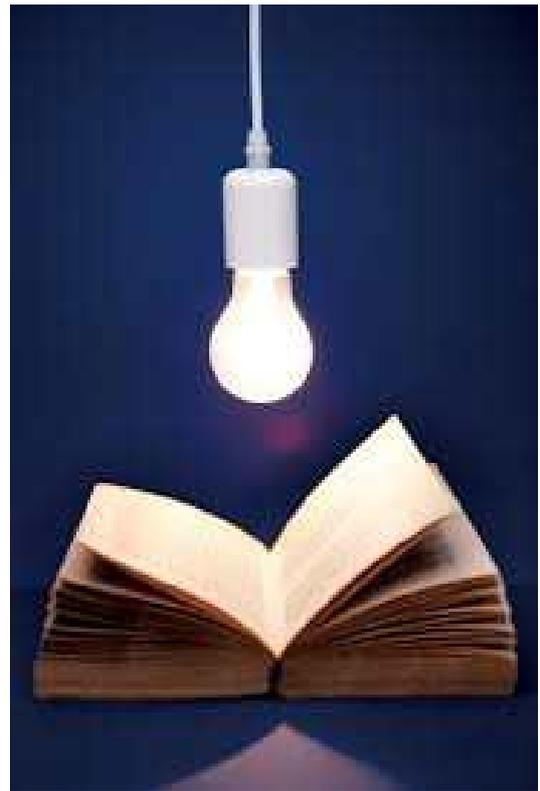
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피르소만큼이나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짓밟힌다면, 그에게도 피르소처럼 투쟁할 수 있는 ‘봉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우리에게 ‘봉기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시대의 스파르타쿠스의 노예반란은 봉기해서 싸우기만 하다 결국 로마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피레네산맥을 넘어 탈출했지만, 결국 새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오늘날 아랍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리고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바로 그 자체라며 파업투쟁을 벌였던 철도노조와 그 투쟁에 연대하고 나아가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잇단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려는 의지와 열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봉기권과 구성권은 의무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인간(시민)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권리입니다.⁸⁾ 그렇기 때문에 철도민영화 반대 총파업투쟁을 했던 노동자들과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시민들과 ‘안녕들 하십니까’로 문제의식을 내보이면서 실천하는 대학생들 모두 자신이 살아 있음을, 권리를 지니고 있는 주체임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서로 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탈출과 일탈을 꿈꾸는 ‘피르소 되기’로 환원될 수도, 왜곡될 수도 없는 거지요.

어찌 보면, ‘피르소 되기’는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그것이 짓밟혔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맞서 싸워야 할 문제를 탈출이라는 것으로 회피하고 있으니깐요. 일상에 찌든 삶을 아주 잠깐이라도 우리는 어딘가로 탈출하거나, 또는 조그마한 일탈 행위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자신의 삶 그 어디에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과 사회의 상황과 모순을 그대로 놔둔 채 자신의 생각만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재충전을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오십보 백보인 거지요.

다양한 계기들에 주목하고 싸우고 연대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돌아보고,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활동들 속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논과 연구, 연대와 투쟁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는, 도달해야 할 미래사회로서 고정화되고 박제화된 사회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주목해서 하나씩, 그러면서도 동물과 같은 극단적인 밑바닥으로의 삶을 강요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면서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사회이겠지요.



8) 인권(시민권)으로서,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의 ‘봉기권’과 ‘구성권’은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공감, 2006)과 윤소영, 『알튀세르의 현재성』 (공감, 1996) 안에 있는,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 정치와 교통」을 참고하세요.

겨울이 추운 사람들, 겨울이 추운 동물들

이경희 | 민중행동 회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택배를 통해 사무실로, 혹은 집으로 컴퓨터도 배달되어 오고, 옷도, 신발도 배달되어 온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택배 가능한 것으로 동물이 있다. 상자에 담겨, 구매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되어 온다. 먹이도 없이, 똥오줌도 구분될 수 없는 좁은 상자안 환경으로 동물들은 배달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동물보호법 아래에서는 합법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돈을 내면 택배로 집에까지 배달가능하다.

애완견에서 반려동물로 명칭이 바뀌고, 동물보호에서 동물의 복지로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변해가고 있는 중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동물원법 제정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인터넷 혹은 방송을 통해 동물복지 혹은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이야기되는 몇 개의 사건들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제돌이의 방사, 강남 H아파트 고양이, 동물원 호랑이의 탈출과 사육사의 죽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방사과정을 통해 돌고래쇼에 이용되는 돌고래들의 포경이 금지된 나라의 바다에서 불법포획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태와 동물쇼인 돌고래쇼에 문제점을 알려내기도 하였다.

제주도에 가면 한번 쯤 보게 되는 돌고래쇼에 이용되는 돌고래가 원래부터 수족관이 집이었던 돌고래가 아닌, 우리 남쪽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놀던 고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원숭이, 돌고래, 물개, 코끼리 등 동물쇼에 이용되는 동물들이 사육사와 친밀해서, 혹은 쇼를 하는 것이 즐거워서 출연하는 것이 아닌, 동물쇼를 위해 혹독한 훈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사육환경은 돈벌이를 위해 동물들의 특성을 고려받고 있지 못한 여러 현실들을 보여주었다.

두번째로 강남 H아파트의 고양이 사건. 특히 버려진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알 수 있었다. 밤이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아파트 지하실을 찾은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지하실문을 잠가 고양이 수십마리를 때죽음시킨 사건으로 지난 여름 H아파트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그런데 이번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실에 고양이들이 숨어들자, 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방안은 고양이를 위해(?) 지하실문을 낮 12시 개방, 오후 5시 폐쇄라는 지침을 만들어 지하실 상시개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고양이도 함께 사는 방안으로 결정된 것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란 다. 중재안에 따르면 어미고양이는 새끼들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밖을 나서려고 해도 12시 이후에 나서야 하고 오후 5시전에 들어와야 새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고양이들은 시계를 볼 수도, 한글을 읽을 수도 없으니 고양이와 인간의 중재안은 너무 인간적이었다.

마지막 사건으로는 작년 10월,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사육사의 죽음이다. 호랑이에 물려 결국 사망한 사육사의 노동환경의 문제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 등도 제기되지만 맹수인 호랑이에 대한 열악한 생육환경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다. 맹수인 호랑이가 동물원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지낸다고, 인간이 만든 울타리 내에서 살아간다고 습성이 바뀌는 것이 아님에도, 전시동물을 인간다운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동물원의 환경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열대동물과 극지방 동물들이 함께 살고, 수십km의 영역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불과 10평의 작은 공간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흙을 밟는 동물들에게 콘크리트 바닥, 진흙 웅덩이 대신, 콘크리트수조가 대신하고 있다.



동물원에서 탈출하고, 사육사와 관람객을 공격하기도 하고, 발바닥뿐 아니라, 온몸과 정신마저 병드는 동물원의 전시동물들이 전시를 위해, 관리를 위해 동물의 생명권들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연초,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의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추위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더 배려받지 못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보고자 하였다.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도 못 지키는데, 동물이 중요하냐고 한다. 동물과 인간의 가치가 상호 대립되거나 선택해야할 가치가 아닌, 함께 가야할 가치이다. 지구상에 공존하는 다양한 생명들 중에 인간만, 혹은 나만이 존재하거나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1%의 선택된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디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